

원주 혁신도시 등 동부권역 숙원 '관설하이패스IC' 신설 최종 확정

✎ 정태욱 | ⓒ 승인 2022.02.18

IC 신설 공약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 사업 확정 환영
강원혁신도시 등 원주 동부권 접근성 대폭 향상 기대

강원혁신도시 등 원주 동부권역 숙원인 '관설하이패스IC'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본지 취재 결과,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연결 사업(관설동 일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설하이패스IC 연결 사업에 대해 내달 원주시와 협약을 거쳐 오는 2024년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설하이패스IC가 완공되면, 반곡·관설·개운동 등 혁신도시 일대를 비롯한 원주 동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남원주IC로 집중돼 있는 진출입 차량 분산 효과와 남원주IC에서 혁신도시까지 9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설하이패스IC 연결사업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이번 사업 확정을 환영한다"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사람이 몰려드는 사통팔달 원주시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정태욱 tae92@kado.net